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1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1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찬양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찬43/새40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김주홍 집사 2부/김학남 집사 3부/박재문 장로 4부/주 연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축복하노라(신상우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입교/세례식 Baptism.....2부(유아세례)/오유민(Yu Min) Altogether **다같이**
3부/입교자, 세례자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호세아(Hos.) 4:1-19 Altogether **다같이**
4부/느헤미야(Neh.) 13:23-31
- 말씀 Message 1, 2, 3부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LAFC(5)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에게

4부 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Do It Again(48): 내 하나님이며 나를 기억하사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찬363/새338장)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여전히 Jesus Alone

- *축도 Benediction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트루디 애덜리

Trudy Eder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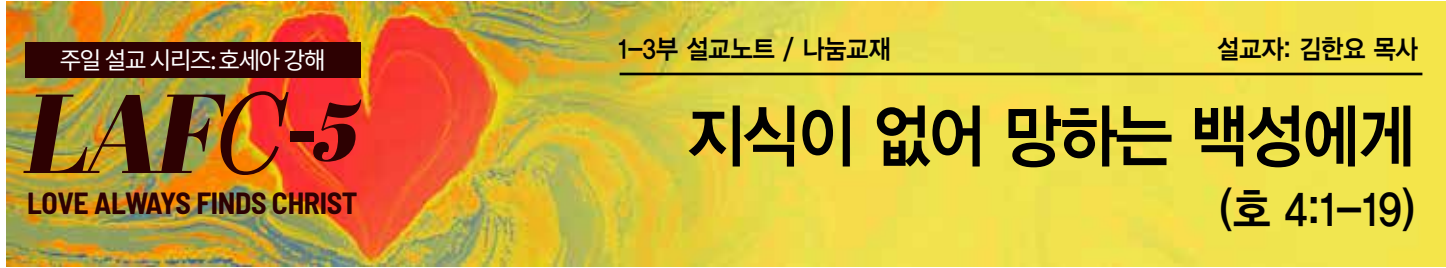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호주 멜버른으로 가는 길은 길고도 멀었습니다. 마침 한국은 추석 황금연휴라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며 공항은 북새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긴 여행에 좋은 영화 [Young Woman and the Sea]를 기내에서 보았습니다. 뉴욕에서 정육점 하는 독일 이민자의 딸로 태어난 트루디 수영선수가 영국해협을 여성 최초로 수영으로 건너는 사건을 영화화 한 것입니다. 트루디는 어렸을 때부터 언니와 물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고, 딸의 잠재력을 알아본 어머니의 격려로 여성수영팀(Women's Swimming Association)에서 정식으로 수영을 배우게 됩니다. 그 이후 많은 수영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급기야 1924년 파리올림픽에 국가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성만의 스포츠로 여겨졌던 잉글리쉬 채널 횡단을 꿈꾸며 마침내 도전하게 됩니다. 첫번째 시도에서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남자 코치의 방해로 좌절되었지만, 다시 두 번째 횡단을 시도합니다. 비록 물은 차고, 수영하는 도중 해파리 떼들도 만나고, 영국 해안을 다가갔을 때는 어두운 속에 방향도 잃고 도중하차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캄캄한 바다 한 가운데 혼자 남은 트루디 역시 패닉이 몰려옵니다. 그때, 트루디는 상징적인 한 행동을 합니다. 수영하며 방향을 잡아주던 수경을 버립니다. 낮에는 유용했던 수경이, 칠흑 같이 어두운 밤바다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입니다.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해변으로 몰려나와 장작불을 태우면서 혹시 방향을 잃어버렸을 트루디를 응원한 것입니다. 방향을 잡은 트루디는 드디어 여성으로 처음으로 영국해협을 14시간 31분의 기록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 이후, 미국의 영웅이 되어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환영하는 뉴욕시민의 기록적인 환영인파는 아직도 깨지지 않는 최대의 인파였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높은 산을 등정하는 도전, 바다를 맨몸으로 건너는 도전 등, 끊임없는 도전에 성공하기 위해 체력을 준비하고,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재정과 후원도 준비합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성공의 열쇠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트루디 선수의 역량과 용기가 대단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불빛이 그녀를 성공하게 하였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을 뚫고 해협 건너편에 우뚝 설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직장을 향하여 출발하는 모든 일꾼들, 내일을 꿈꾸며 가방을 챙기고 학교를 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다를 건너게 하는 마지막 불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었다고 믿는 수경을 바다에 버리듯, 이제 는 하나님의 불빛을 보고 거친 바다를 헤엄쳐 갑니다.

Flight to Melbourn, Australia, was long and far. Korea was celebrating autumn's golden holiday at the same time. Lots of people were traveling to foreign countries making airport very crowded. During this long trip, I watched a nice movie called [Young Woman and the Sea]. This movie was about Trudy, the first woman to swim across the English Channel. Trudy is a daughter of a German immigrant who had a butcher shop in New York. Since young age, Trudy loved to play in water with her sister. Recognizing her talent, her mother encouraged her to take formal lessons from Women's Swimming Association. Since then, she excelled in swimming competitions and eventually participated in Paris Olympic in 1924 as the national team member. However, she dreams of crossing the English Channel, which was thought to be a male sport. Finally, she takes on the challenge. On her first try, she was frustrated by interference of an extremely prejudiced male coach and failed. She attempts to cross the second time. The water was cold. She comes across a school of jelly fish. When she comes closer to the coast of England, she loses direction in darkness and faces the risk of giving up midway. Trudy, left alone in darkness in the middle of the ocean, begins to panic. At that moment, Trudy takes a dramatic action. She throws away her goggles that helped her with direction. Goggles that was useful during the day was useless in pitch-black night ocean. It was at that moment, that suddenly she sees a light in the distance. People listening to her radio broadcasting came out to beach and made bonfires to cheer Trudy and help with direction. After finding her direction, Trudy finishes swimming the English Channel in record 14 hours and 31 minutes as the first woman ever to cross. When she returned to New York as an American hero, the recorded number of New York citizens came out to welcome her. It is said to be the largest crowd ever, yet to be broken.

We, humans, continue to challenge ourselves. We challenge to climb high mountains, challenge to cross the ocean with just bare body. To succeed in these endless challenges, we prepare our body, gather all equipment, and prepare finance and support. However, the final key to success is not within us, but it is outside of ourselves. Although, athlete Trudy's ability and courage were amazing, at the final moment, it was the lights that brought her success. As such, the source that enables us to stand tall across the strait, overcoming the countless challenges that confront us today, is God. "It is not I, but God." To all those workers leaving for work this morning, and our children going to school with backpacks dreaming of tomorrow, we all need this final light to help us cross. We throw away the trusted goggles that we believed protected us in the ocean and, now, look to God's light and swim through the rough waters.



1. '이 땅 주민들'에게 없는 세 가지와 있는 것 다섯 가지를 아래에 정리해 봅시다.(1-2절)

● 없는 것: 1) _____ 2) _____ 3) _____

● 있는 것: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5) _____

2. 죄의 결과가 사람뿐 아니라, 자연계에도 미치고 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3절)

3. 죄악에 물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임했다고 말씀합니까?(4-6절)

4. 주님의 백성의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적고 있습니까?(12절)

5.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는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구절은 1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참고구절을 생각하면서 적어보십시오.(17절, 참고/출 20:5-6, 출 34:14, 신 4:24)

적용하기



예배 후기
엘리사 새벽기도회

충성되고 지혜로운 임직자를 세우기 위해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3) 엘리사 새벽기도회는 다가올 종직자 임직을 위해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드린 귀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사랑과 용서, 거룩과 겸손을 배우고, 서로를 이해하며 한몸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생각과 말로 인해 생긴 오해와 상

처가 있기도 했고, 주님을 바로 보기보다는 맹목적인 따름도 있었지만,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품고 기도를 통해 진정한 섬김의 길을 찾기를 간구했습니다. 임직이 단순한 직분의 부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결단으로, 공동체가 정의롭고 은혜로운 합리적인 절차로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겸손한 섬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행하는 직분자들이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 됨을 힘써 지켜가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박지연 권사

어느덧 2025년을 결산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계절이 되었고, 교회는 내년도부터 교회를 섬길 신임 임직자를 선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베델교회는 2년 전부터 이 중대한 결정을 온 교

회가 간절한 기도로 준비하는 엘리사 새벽기도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은 베델교회 창립 50주년을 맞게 되고, 이 반세기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후에 계속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11월 첫째 주일, 주 목사님의 인도로 매일 새벽, QT 인 순서에 따라 사도행전 12장과 13장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뜻을 생각하였습니다. 목사님이 말씀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가는 본문이지만, 거룩과 겸손을 갖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임직자들을 세우고, 이분들을 맞는 교회의 기존 임직자들과 교우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데 매우 적합한 말씀이 매일 이어졌습니다. 새롭게 선출되거나 임명되는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사역 권사, 사역 장로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 청 장로

사역 소개
수양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곳

수양관은 Cleveland National Forest가 시작되는 산중턱에 위치해 있으며, Lake Elsinore의 탁 트인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두 개의 수양관, 베델과 갈릴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델 수양관은 22에이커의 넓은 대지에 6,000평방피트 규모의 건물이 있으며, 갈릴리 수양관은 21에이커의 대지 위에 15,000평방피트 규모의 두 개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수양관들은 베델 공동체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으로, 베델동산, 수양회, 세미나, 기도회, 셀 모임, 목회자 및 성도들의 영성 회복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양관에는 예배실, 식당, 숙소 등 각종 모임을 위한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양관 사역의 주된 목적은 건물과 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모든 모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양관을 사용하는 분들이 편안하고 집중된 환경에서 영적 훈련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역 중에는 안타까운 순간도 있었고, 감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산불이 수양관 주변까지 번졌을 때, 수양관을 지켜 달라는 교회 전체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수양관 주변은 모두 타버렸지만, 수양관 건물 자체는 기적적으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수양관 대관을 원하시면 교회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교회 또는 단체의 보험증서를 관리자께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양관의 모든 시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식사 준비에 필요한 식재료와 도구, 그리고 침낭(Sleeping Bag)은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예약은 반드시 사전에 진행해 주

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께 드리는 부탁의 말씀은 수양관은 하나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경험하며 영적 훈련을 위한 거룩한 공간입니다. 이곳이 언제나 아름답고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정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집사



사역 간증
아침영상 메시지

덮여 있던 눈이 열리는 아침



저는 매일 새벽 4시경 눈을 뜹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매일의 반복되는 루틴이 있기에 자동적으로 눈이 떠집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외치고 세수하고 책상에 앉습니다. 오늘 들을 큐티 말씀을 읽고 묵상한 다음, '김한요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침 영상 메시지'를 듣습니다.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에 퍼진 후, 전 교회가 문을 닫았고 2020년 3월 13일부터 베델 교회 아침 영상 메시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후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김한요 목사님과 함께하는 아침 영상 메시지'를 들을 귀 있는 믿음의 성도라면, 이 말씀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복음의 메시지인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은 나를 매일 회개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며,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장관인 내관이 아시아의 예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전도자 빌립을 통해 깨우침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블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만, 바울의 제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전도를 통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며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매일의 아침 영상 메시지 큐티 말씀은 베델의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복음의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이제 아침 영상 메시지의 내재된 복음 전파 사역은 많은 사람들과 나눔을 통해 더 넓게 확산되고 전달됩니다. 아침 영상 메시지가 100회, 500회쯤에서 끝날 것이라는 예측은 빛나가 현재 1,460회를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가 날마다 온 세대 큐티를 통해, 또 아침마다 들려주시는 아침 영상 메시지를 통해 덮여 있던 눈의 막이 벗겨지고 복음의 깊고 넓은 진리를 깨달아 땅끝까지 말씀을 전파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매일 같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물처럼 주신 아침 영상 메시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호 집사



사역 간증
새가족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며

우리 가족은 2년 전 처음으로 얼바인 베델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섰을 때 제 마음속에 든 첫인상은 "짧다, 그리고 살아 있다"였습니다. 코트야드에는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생기 속에서 교회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다섯 살이던 제 딸아이는 낯선 환경이 너무 두려웠는지 예배 시간 내내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던 그때, 처음 뵈 한 장로님께서 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한 시간 넘는 예배 동안 울고 있는 아이를 품에 안고 계시던 그 장로님의 품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품 같았습니다.

이민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가까이 없는 낯선 땅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때로 외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교육 환경도 달라 늘 부족한 엄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붙잡아 준 것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딸아이가 주일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였고, 아이는 찬양을 부르며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때로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교회 선생님들, 친구들,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이 저를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아이의 믿음이 자라날수록 저 역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 해주어야 한다'는 부담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키우신다'는 믿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사실 아이에게 해준 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교회를 통해 제 아이를, 그리고 저 자신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아이의 웃음 속에서, 선생님들의 기도 속에서, 친구들과의 교제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 4:16) 베델교회는 이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정은 그 사랑의 몸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주신 것도, 자라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베델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아이를 함께 키워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희경



교회학교

Family Fall Fest 후기

성령의 불



어둠이 세상을 뒤덮은 날,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밝혔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행사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하 돌씩 모인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번 Family Fall Fest는 OICOF (One In Christ On Friday) 와 함께하여 더욱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축제를 즐기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교회 마당에는 Crafts, Rides, Photo Booth, Face Painting, 그리고 Lemonade Stand까지.. 즐겁고 신나는 이벤트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Gospel Station을 통해 복음을 듣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며, 영아부 아이들을 위한 Play Area도 마련되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진 축제가 되었습니다.

학부모로서,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이번 행사에 참여하며 곳곳에서 묵묵히 섬기신 봉사자들의 기도와 헌신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준비해 주신 모든 손길 덕분에 아이들이 안전하고 기쁨으로 축제를 누릴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어서 온 세대가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celebrate하며 찬양과 감사로 OICOF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복음적 메시지가 담긴 인형극을 보는 아이들의 눈은 반짝였고,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어진 영상에서는 10월 31

일 종교개혁 기념일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날은 어둠을 축하하거나 사랑을 받는 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선포하는 날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쏟아 기도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기도의 본이 되신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예배였지만, 예배당은 성령의 불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의 가장 어두운 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며 빛이 밝혀진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장지윤 집사(학부모)

At the Fall Festival, I had the opportunity to help with the cookie decoration craft station. It was a place where students could rest from games and rides and sit down with parents or friends while adding

layers of frosting to their cookies. It was a joy to see the students excited to make their own decorations and eat the cookies they created – some even came back to make a second or third cookie!

The whole event felt covered in prayer; everything was so calm and peaceful. The night ended with students worshipping God at OICOF instead of going out trick-or-treating. I was truly blessed!

Kevin Son(교사)

This year, for Gospel Station, we created a mini maze where, as students traveled through the dark chapel with their toy flashlights, they could see different parts of the Gospel. After finishing the maze, the students were encouraged to memorize three different Bible verses to receive a cross bracelet.

This was the first time Gospel Station had attempted this, and it was really successful, as the students were engaged and curious in the maze.

Despite the stresses of school and life, God gave the Gospel Station team peace and His Spirit to share the Gospel with the students through this little maze. I am so blessed to have had the opportunity to share the Gospel with the K-5 students and am thankful that God used our team for His glory.

Micah We 집사(교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총성/훈련/BCA: 정승락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정철 목사
- Joy/화평/섬김: 박성권 목사
- 사랑/QT: 조태현 목사
- 은혜/예배: 서동민 목사
- 믿음/공동체: 조동현 목사
- 운유/말씀/QTin: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 예살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살채플: 이형석 목사
- 예살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 정티나 목사
- 영아부/아기학교: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관해 전도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살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운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2025년 가을 세례/입교식

오늘 3부 예배에서 세례 및 입교식이 거행됩니다. 세례와 입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라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세워 가는 사명을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이 귀한 예식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와 처음 믿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온 교회가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16명

- BYM(5명): 박 준, 박예은, 정재윤, 최원우, 허재인
- CIM(3명): 당마이카, 우현아, 윤해준
- 예살(2명): 김수민, 채지우
- 장년(6명): 박진형, 신재욱, 오진희, 이아름, 정미정, 황기하

〈입교자〉 14명

- BYM(9명): 공신우, 김재인, 류새솔, 박에서, 배다윗, 송준원, 이하은, 정의현, 흥현오
- CIM(2명): 유지민, 최예린
- 예살(3명): 고준우, 이승주, 하지웅

- ▶ 일시/장소: 11월 16일(주일) 3부 예배 시, 본당
- ▶ 문의: 박세환 장로 (949)887-6944, 서동민 목사 (562)447-6947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1,12월) 11/23: ①부-박종민	②부-방모세	③부-박호성	④부-도함준
11/30: ①부-김태현	②부-박원규	③부-박영선	④부-김규래
12/7: ①부-박지학	②부-백영만	③부-배진용	④부-김도윤

헹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11,12월) | 11/22: 나성욱 11/29: 박기준 12/6: 김홍순 12/13: 김 샘

강단꽃(11,12월) | 11/16: 김인흠, 정봉화 11/23: 강정선, 서은숙, 윤주원 11/30: 서은숙, 이종선, 주정숙 12/7: 이지민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김혜수(가정의학과), 간호사-주경아 다음주 | 의사-권석원(치과), 간호사-황선영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람),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성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더) 온두라스 | 이도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창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목장별 추수감사축제** 드디어 목장별 추수감사축제가 한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The Story of Bethel'이란 주제로 목장별로 준비하는 장기자랑과, 전교인 만찬 저녁식사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축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11월 23일(주일) 오후 4시, 본당
 문의: 조광중 집사 (949)706-4168

◆ **세례/입교식** 오늘 주일예배 3부에 세례/입교식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귀중한 시간을 맞이하신 성도님들을 축하합니다. 예배 후 세례/입교자들의 단체 사진 촬영이 있으니 그대로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7면 참고)

◆ **성찬식** 성찬식이 다음 주일(11월 23일) 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 교인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이번 성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 **베델기도학교 종강예배** 12주간의 기도학교 훈련 과정을 마친 6기 베델 기도학교가 종강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수료생이 교회 구석구석으로 보내져 속한 자리마다 기도의 불씨 일으키는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도록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11월 20일(목) 오후 6시 30분, 유년부실
 문의: 양승화 집사 (714)512-1236

◆ **교회 버스 세차 봉사자 모집** 교회 버스 세차에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작은 손길이 모여 주일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을 깨끗한 버스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큐알코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봉사 일시/장소: 11월 22일(토) 오전 8시-11시, 코트야드



◆ **BYM 중등부 겨울 수련회** BYM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Kainos'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등록은 큐알코드로 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일 3부 예배 후에 출발 예정)
 일시/장소: 12월 21일(주일)-23일(화), Pali Retreat
 대상/회비: 6-8학년(BYM Qara), \$225
 문의: Cindy Lee 전도사 (213)335-9049



◆ **BYM 고등부 겨울 수련회** BYM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RE:STORE'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등록은 큐알코드로 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일 3부 예배 후에 출발 예정)
 일시/장소: 12월 21일(주일)-23일(화), Pine Summit
 대상/회비: 9-12학년, \$225
 문의: Hanna Kim 전도사 (909)837-7747



◆ **CIM 한어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Like Jesus 작은 예수'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가집니다. 등록은 큐알코드나 카톡방에 올라오는 신청 링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12월 21일(주일)-24일(수)
 장소: Thousand Pines Christian Camp
 회비: \$200(다자녀 회비: 첫째-\$200, 둘째-\$175, 셋째-\$150)
 베델 교인이 아닌 친구 회비: 친구와 초청한 CIM 학생 모두 \$150
 문의: 진정훈 집사 (714)318-2183, 이성우 목사 (818)294-8535



◆ **추수감사절 베델사진관 운영**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각 예배 후에 코트야드 포토 부스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드립니다. 가족과 셀, 목장, 팀 등의 동역자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의 추억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 **베델한국학교 2026년 봄학기 등록**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베델한국학교가 내년 봄학기 재학생 조기 등록을 시작합니다. 할인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학기 일정: 2026년 1월 24일-5월 16일(16주, 4월 4일 부활절 휴강)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학습 내용: 영성훈련(QT), 한국어, 한국문화, 역사 등
 신청 대상: 만 5세 이상부터 K-12학년 (2025년 9월 1일 기준, Kindergarten 이상)
 재학생 조기등록 할인기간 및 등록금: 11월 15일(토)-23일(주일), \$410(기간 내 완납 시)
 등록 사이트: <https://koreanschool.bkc.org/>
 문의: 윤주원 장로 (949)892-9516, koreanschool@bkc.org

◆ **축하해 주세요**
 - 오늘 2부 예배에 오성민/박유진 성도의 딸 오유민(Yu Min)의 유아세례식이 있었습니다.
 - 오명환/이은자 집사의 딸 이수정(Christina)양과 이원희(Daniel)군의 결혼식이 11월 15일(토)에 있었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WANA(어와나):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헵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일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인경,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정원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번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HOSEA LECTURE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L AFC -5
LOVE ALWAYS FINDS CHRIST

**To People Who are being Destroyed
for Lack of Knowledge
(Hosea 4:1-19)**

1. Summarize below three things that the inhabitants of the land did not have and five things that they did have. (vv. 1-2)

- Not have: 1) _____ 2) _____ 3) _____
- Have: 1) _____ 2) _____ 3) _____
- 4) _____ 5) _____

2. How does the passage express to show that the result of sin is not only with human but extends to nature? (v.3)

3. What consequences will come upon Lord's people who are steeped in sin? (vv.4-6)

4. What specifically are the sins of Lord's people? (v.12)

5. However, we discover hope in v.15 that God does not turn away his children. Think on reference verses and write what is God's heart. (v.17, Ref: Ex 20:5-6, Ex 34:14, Deut 4:24)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